

출판학,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출판학회 세미나서 대학 출판교육의 방향 모색

대학에서의 출판학강좌 개설은 왜 필요하며, 정규과정으로서의 출판학과 신설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만약 4년제 정규대학에 출판학과가 설치된다면, 교육목표는 어디에 두고 교과과정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여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난 10월29일 마포 출판단지 회의실에서 '대학에서의 출판학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던 한국출판학회(회장 안春根) 연구발표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이 광범하게 거론됐다.

출판학과는 왜 개설돼야 하나

출판학회 회원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金義洛씨(한국출판연구소 사무국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출판학과 설치의 당위성 및 발상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 출판학과 설치의 필요성은 출판계의 인력부족이 절실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출판도 이제 하나의 '사이언스'로 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春根회장은 기본적으로 출판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

이 출판계에서 일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출판학과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소박하게는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일단 정규학과를 설치해 교육을 하다보면 자연히 학문으로서의 부피와 무게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 학과로서의 교육목표 정립이 애매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吳慶鎬교수(해전전문대 출판과)는 교육목표가 교육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출판학의 아이덴티티 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출판 자체가 원고기획, 생산제작, 판매유통의 세 부분을 골고루 포괄하고 있는 만큼 출판학을 어떤 학문의 영역 속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교육내용의 무게중심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출판학이 사회과학인지, 정보과학인지,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종합과학의 일종인지의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吳교수의 지적이다.

한편, 4년제 학과가 설치될 경우, 그 교육내용에 있어 사설학원이나 전문대(신구대, 혜전대) 및 일부 특수대학원(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과의 변별점

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 실제적인 커리큘럼의 구성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론과 실제의 바람직한 균형 논의돼

尹炯斗사장(범우사 대표)은 학문의 교차로라는 출판의 특성상 1~2학년 과정에서 넓은 인문적 교양을 쌓은 다음 3~4학년에서 출판의 전문적 이론과 실제를 교육시킨다는 것을 커리큘럼 구성의 일반론적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인력수급의 즉효적인 측면"에서의 커리큘럼 구성을 강조했다. 반면, 金斗植씨(서울편집디자인학원 교수부장)는 출판의 실무적 적응력을 기르는데는 오히려 사설학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학과와 커리큘럼은 출판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기르는 쪽으로 편성돼야 하리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세목에 있어서는, 단행본 출판 위주의 커리큘럼을 지양하고 잡지론, 신문론까지 포용해야 된다는지(姜周鎭),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청각자료 및 컴퓨터 분야에까

지 커리큘럼을 확대해야 된다(金義洛)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개론서적 이론교육에 머물러 있는 대학원교육도 보다 심도있는 '출판철학'을 배양하는 쪽으로 지향돼야 한다(李正春)는 점이 거론됐다.

그밖에도 이날 발표회에서 출판학교육의 내실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로는, 모의출판사의 정기적 운영을 비롯해서 인접학문의 부전공 선택을 의무화하는 문제, 대학출판부와 유기적 연결문제 등이 활발하게 거론됐다.

특히, 출판학의 커뮤니케이션과학으로서의 속성상 발전하는 제반 현대 학문체계와의 상호연계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데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아울러, 현재 우리의 교육여건상 4년제 대학에서의 정규학과 설치의 출판과 출판학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이의 실현을 위한 출판계 및 출판학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강철주 기자

이색잔치

흙건축과 흙춤 어우러진 한판

「이집트 구르나마을 이야기」 출판기념 잔치

전통건축자재인 흙의 무한한 잠재력을 입증하기 위한 흙건축재현의 흥겨운 한마당이 11월5일 오후2시 마포구 신수동 출판단지 마당에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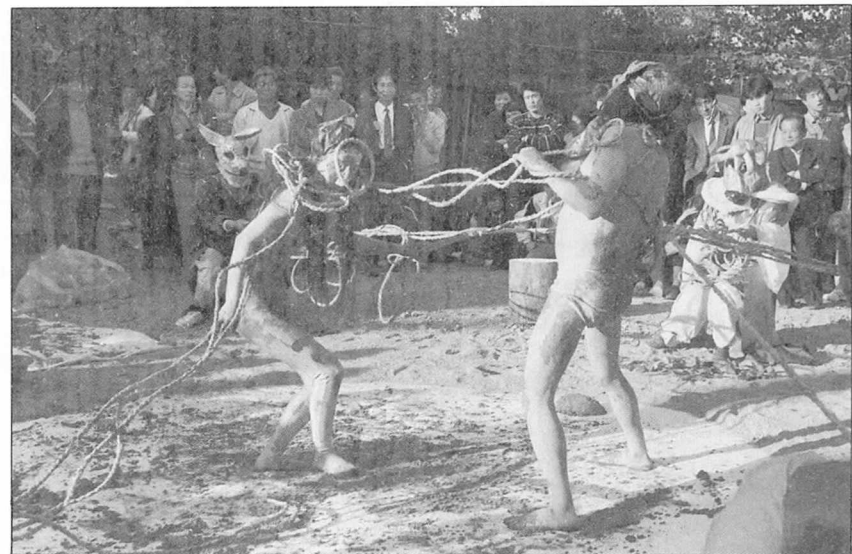
출판사 열화당(대표 李起雄)이 이집트의 건축가 하싼 화티의 「이집트 구르나마을 이야기」 번역출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통 흙건축의 재현작업과 무세중씨의 흙춤, 흙건축관계사진전(5~12일, 출판단지 전시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출판가의 이색이벤트라는 차원을 넘어 전통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집트 구르나마을 이야기」는, 1945년 구르나마을 이주건설계획을 담당했던 저자가 관료주의 건축가들의 무책임한 바르식 콘

크리트주택을 거부하고 이집트 전통양식인 흙벽돌집을 고집하면서 겪은 사실들을 기록한 책으로, 근대화의 추세에 밀려 몰개성적인 주택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큰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번역자이며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자인 정기용씨(기용건축사무소 소장)는 "「흙집」 하면 궁핍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콘크리트나 철'은 풍요와 진보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흙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새로운 환경창조에 재생시키고자 했다"고 밝히고, 안동 하회마을 등 전국의 토담집을 찾아 다니며 옛도구들을 관찰하고 고회를 넘긴 마을어른들을 찾아 체험담을 수집했던 그간의 작업이 이번 행사의 기초가 됐다고 말했다.

이 날의 행사는 한마당행사를 위한 고사로



시작해 지점돌 다지기과 담틀작업으로 이어졌는데, 난지도에서 가져온 흙으로 흙다리라 흙집 일부를 직접 재현했다. 이어 전위연극인 무세중씨와 이나미씨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삶의 과정을 그린 인상적인 흙춤을 벌였다.

한편 국내의 흙건축사진 80여점을 전시한 「세계 흙건축 사진전」에서는, TV·타이프라이터 등의 문명이기들을 흙으로 덮은 안창

홍씨의 미술작품과 흙건축 재현작업을 담은 비디오상연으로 이색을 더했다.

전시기간 중인 11월11일(오후 7시, 출판단지 전시실)에는 흙건축기술과 세계 흙건축비교를 주제로 한 「흙건축에 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오애리 기자